

# 갓옷에 關한 研究

- 朝鮮時代를 中心으로 -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鄭 福 南

目 次	
I. 序 言	V. 結 語
II. 갓옷의 沿革	參考文獻
III. 上古, 高麗時代 服飾에서의 갓옷	ABSTRACT
IV. 朝鮮時代 服飾에서의 갓옷	

## I. 序 言

韓民族은 古代 穴居生活에서 점차 家屋生活로 住居形態가 바뀌면서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온돌을 設置하였고, 採集·狩獵·漁撈의 原始社會에서 遊牧社會를 거쳐 農耕社會로 發展하게 되자 一年의 農事를 다 끝내면 따뜻한 온돌 生活를 하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어 防寒具에 대한 觀念이 切實하지 않았을 것이다. 特히 新羅가 韓半島를 統一하게 되자 韓民族의 活動地域이 韓半島로 축소되면서 遊牧騎馬民族의 生活形態로 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毛皮 대신 明紬, 木綿이 禦寒 옷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고, 갓옷은 特別한 地方이나 높은 地位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갖추기 힘든 것으로 變化되어졌다.

本稿에서는 韓國服飾에서 갓옷제도와 그 沿革을 살펴보고 特히 朝鮮朝 中期의 갓옷制度를 重點

的으로 考察한다.

## II. 갓옷의 沿革

갓옷은 裘, 裘衣, 갓옷, 갓옷 등으로 記錄되어 있다.

徐有榘는 짐승의 깃털을 取해서 만든 옷을 총칭하여 裘라고 하였으며(裘, 凡取獸皮 製服統名曰裘)<sup>1)</sup>, 金東旭은 “갓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인데 裘衣라고도 한다.”<sup>2)</sup>라고 하였다.

《古語辭典》에서 “갓을 가죽”이라고 하였으며<sup>3)</sup> 《訓蒙字會》에서는 “裘를 갓옷裘”라고 하고 있다.

4) 《杜詩諺解》에서는 “尸寢驚弊裘를 주근드시 자다가 흰 갓옷 두피져 놀라오라”<sup>5)</sup>로, 《老乞大·朴通事諺解》에서는 “貂鼠皮毛袖를 貂鼠皮 소매소차 내브턴 갓옷”<sup>6)</sup>이라고 諺解하고 있으며, 《閩閩叢書》에서는 “裘는 갓옷 일홈이다”<sup>7)</sup>라고 한 것을 보

1) 徐有榘《林園經濟志(二)》(瞻用志), 서울: 保景文化史, p.432.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서울: 웅진出版社, 1992, p.556  
 3) 南廣祐 編, 《古語辭典》, 서울: 一潮閣, 1977. p.24  
 이상춘, 《조선옛말사전》, 乙酉文化社, p.13  
 신기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p.32.  
 4) 《訓蒙字會》, 서울: 大提閣, 1985, p.452, 472  
 5) 《杜詩諺解》, 서울: 景仁文化社, 1975, 卷22(1), p.12  
 6) 《老乞大 朴通事諺解》,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p.210, 261  
 7) 鄭良婉, 譯注, 《閩閩叢書》, 서울: 寶晉齋, 1975, p.125

면 中國에서와 같이裘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며裘를 갖옷, 갖옷으로 이르는 것이다.

### Ⅲ. 上古·高麗時代 服飾에서의 갖옷

#### 1. 上古時代

우리나라에서 部族國家의 形成은 大陸과 인접한 北方系列의 社會에서 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中國大陸의 東北地域을 포함한 만주 일대의 檀君朝鮮과 夫餘, 高句麗, 韓半島 東北의 滅貊, 東의 臨屯, 南의 辰國 등이 그것이다.

韓半島의 南에 위치한 辰國을 제외한 北方地域 國家들의 衣服型은 襦, 袴, 裳, 袍를 中心으로 하여 여기에 冠帽, 帶, 靴, 또는 履가 첨부되어 寒帶性 衣服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東史綱目》에 “冀州 東北의 東夷가 堯임금에게 皮服을 貢物로 바쳤다.”<sup>8)</sup>는 記錄은 東北亞 居住人들이 일찍부터 갖옷을 着用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B.C 7世紀 경에는 朝鮮에서 產出되는 豹皮가 中國에서 交易까지 되었는데<sup>9)</sup> 이러한 것들은 上古時代에 갖옷이 防寒用 衣服의로서 모든 사람에게 通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A.D 1~7世紀까지의 上古時代의 服飾은 夫餘는 白色衣服을 崇尚하여 白布의 大袂袍와 袴를 입고 革靴을 신었으며, 國外 旅行時에는 繪, 繡錦, 罽 등으로 만든 옷을 입고 大人은 그 위에 狐皮, 狸皮, 狢皮 또는 黑白의 貂皮 등 北方產 毛物의 갖옷을 덧입었으며 金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sup>10)</sup>

高句麗人들은 布帛과 獸皮로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貴者는 大袖衫과 大口袴에 素皮帶와 黃革履

를 착용하였고 임금은 五采服을 입고 庶人은 褐衣를 입었다.<sup>11)</sup>

太祖大王 69年 10월에 夫餘 行幸時에 肅愼의 使臣이 와서 紫狐裘를 바치므로 王이 잔치하여 보냈다는 記錄이 《三國史記》에 있으며<sup>12)</sup>, 梅山里 四神塚 狩獵圖의 騎馬狩獵人이 着用하고 있는 服裝은 北方 胡服系의 服飾으로 騎馬民族의 性格을 잘 表現하고 있다. <그림 1>의 衣料에 나타난 縐무늬는 學者들 사이에 홀치기 猨범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狩獵時 着用한 것으로 보아 絹織物에 홀치기 猨범을 使用한 衣料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動物의 毛皮라고 추측되어 진다. 무용총 벽화에서도 縐무늬 衣服을 着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高句麗時代에는 一般人들의 服飾에서도 猨범스러운 動物의 毛皮紋樣이 많이 쓰여진 것 같다. 또한 이와 비슷한 動物毛皮의 紋樣은 後代의 衣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藥學軌範의 處用官服圖說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그림 1> 梅山里 四神塚 狩獵圖(韓國美術全集 4. 壁畫, p.36)<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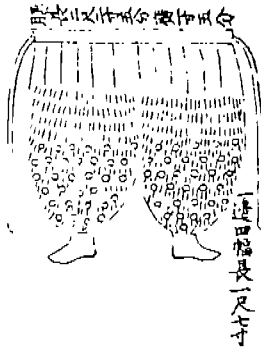
8) 《東史綱目》, 卷1上, 己卯, “箕子朝鮮 元年, 冀州東北之地 東夷居爲 甌德廣被率皆歸化 貢其皮服”

9) 《管子》卷23, 經重甲 第30. “豹之皮容金也然後八十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10) 《三國志》卷 13, 烏丸鮮卑東夷傳 第30夫餘,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 履 革靴 出國則尙繪錦罽大人加狐狸 狢白黑貂之裘 以金銀飾冒”

11) 《北史》卷74, 列傳 第83, 高麗條,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鈿 大臣胄羅冠 次絳羅 玕兩烏羽 金銀雜鈿 衫筒裏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載弁 衣 布帛及皮”

12)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 第3, 太祖大王 69年. 冬十月 王辛扶餘 祠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愼 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遺之”



<그림 2> 豹文大口袴(樂學軌範 권9, p.406)

高句麗人들은 말·소·돼지를 비롯한 짐짐승을 많이 길렀으며, 야생동물 사냥을 잘 하였던 만큼 防寒服으로 毛皮服이나 털모자 같은 것을 만들어 着用하였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안락2호 무덤 벽화의 여자용 모자는 털모자 같아 보인다.<그림 3>



<그림 3> 안락 2호분의 여자 털모자(高句麗文化, p.186)

渤海는 統治者와 支配階級이 高句麗의 遺民이었던 만큼 官吏의 儀章 이외 服飾은 高句麗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渤海는 皮革 등이 많이 產出되었는데, 특히 海豹皮, 貂鼠皮 등의 毛皮類는

唐이나 日本까지 輸出하였고, 貂鼠皮로 만든 이불과 요를 後唐에 선물 한 경우도 있고 楊中遠이 日本에 使臣으로 갔을 때에 貂裘를 어떤 사람에게 기증하였다는 사실을 보면<sup>13)</sup> 吉林의 여러 山에서 많이 產出되었던 青鼠皮와 銀鼠皮, 기타 다른 種類의 毛皮를 이용하여 防寒具, 즉 갓옷이나 이불, 요까지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D. 2~3世紀에 馬韓의 西海섬 州胡國(제주도)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韋衣(가죽옷)을 입었는데 上衣는 있으나 下衣는 없었다는 記錄이 《後漢書》에 있다.<sup>14)</sup>

新羅와 百濟의 衣服材料는 縑布 麻布, 紵布 등이 주로 使用되었고 겨울에는 罽가 使用되었다. 毛皮는 一部 地方이나 特別한 目的의 衣服에 使用된 듯하나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以上에서 보면 北方國家들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爲해 갓옷을 着用하였으나 農耕을 爲主로 한 南에 位置한 國家들은 州胡國을 제외하고는 갓옷 着用이 一般化되지 않았던 것 같다. 特別히 新羅의 三國統一 以後, 國土가 韓半島로 축소되어 北方의 領土를 상실하므로서 점차 常武精神의 쇠락과 함께 遊牧騎馬民族의 氣風은 사라지고 이와 더불어 防寒衣로서의 갓옷의 역할도 축소되어졌으리라 생각된다.

## 2. 高麗時代

高麗時代의 服飾은 우리 古來의 服飾 위에 唐制, 宋制, 中國化된 契丹制, 元制 등의 各 服飾이 交錯해서 影響을 주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支配者인 官人階級에 있어서의 制度上 變遷에 불과한 것일 뿐 被支配階級인 庶民層에 있어서는 三國以來 별다른 變化없이 우리의 基本 服飾을 그대로 襲用하고 있었다.

13) 《渤海國志長編》卷17, 食貨考 第4. “又案末王諱諤二十年 以貂鼠皮被褥各一貢於後唐 又楊中遠使日本時 貂鼠皮製爲被褥與裘之證也 以貂裘贈人 此以”

14) 《後漢書》卷115, 韓 “馬韓之西海島城有州胡國 其人短小髡頭衣韋衣有上無下”

高麗 仁宗 元年(1123年) 宋의 徐兢이 쓴 《宣和奉使 高麗圖經》에서 高麗人의 衣服에 關하여 쓴 것을 보면, 道士의 服裝은 羽衣를 使用하지 않고 白布裘에 皂巾을 쓰며 四帶를 입는데 이것은 一般人들의 옷에 비해 소매가 좀 큼직할 따름이고, 進士는 皂絁裘에 四帶文羅巾, 黑帶, 革履를 着用하였으며, 民長(鄉吏)은 皂絁裘에 文羅巾, 黑角束帶, 烏草甸履를 着用하였다.<sup>15)</sup>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白布裘라는 것은 高麗時代의 王을 비롯하여 一般人들까지도 平居 燕息때 입었던 白紵袍와 같은 것으로 소매만 약간 넓게 한 것이고, 皂絁裘는 裘라고는 하였지만 黑色 明絁袍로서 中國式 袍를 말한 것이다.<sup>16)</sup>

宋의 徐兢이 高麗에 在留한 期間이 불과 1個月 남짓하였기 때문에 이 동안 그들에게 흥미있는 것만 記錄한 것이므로 이것으로서 高麗時代服飾에서의 袷 制度는 알 수 없다. 그러나 高麗初부터 睿宗時代까지 약 170~180년동안 女眞人들이 高麗에 빈번하게 入貢하였는데 그들의 貢物 가운데 衣服材料로서 貴한 貂皮, 靑鼠皮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sup>17)</sup> 高宗以後 蒙古가 高麗에 요구한 貢物에 多量의 毛皮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高麗服飾에서 毛皮가 衣服材料로 이용되었음을 추측케 하



〈그림 4〉 天山大獵圖(서울國立中央博物館所藏)

며, 서울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天山大獵圖의 騎馬人物像은 胡服으로 보여지는 毛皮服을 着用하였는데 이를 보면 袷도 着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 IV. 朝鮮時代 服飾에서의 袷

朝鮮時代 服飾에서의 袷에 關한 記錄은 《朝鮮王朝實錄》 太祖條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으며, 임금이 明 使臣에게 下賜한 物品 가운데 防寒用 袷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朝鮮王朝 初期에도 袷 制度의 存在를 알 수 있다.

袷 制度는 成宗代를 거쳐 中宗代에 이르면 一般化하여 男服뿐만 아니라 女服에도 이를 着用하게 된다. 이 制度는 肅宗, 英祖代까지 내려왔으나 사치품이라하여 억제하였으므로 婦女子의 袷 使用은 이후 차차 줄어들었다.

이 袷 制度는 身分과 階級에 따라 着用할 수 있는 袷의 材料는 엄격히 區分하였으나 위로는 國王으로부터 아래로는 工商賤隸에 이르기까지 着用하였다.

##### 1. 袷의 材料

朝鮮時代에 널리 유행되었던 貂皮類는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產出되었는데 암황색이 많았다. 貂皮 한 장은 사방 한 자(一尺) 밖에 되지않아 60여 마리의 皮를 모아야 겨우 貂皮 袷 한 벌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따듯하고 두텁기는 만주産에 버금 갔다. 鼠皮와 華鼠皮는 모두 다 袷의 材料로 使用되었다.<sup>18)</sup>

水撻의 가죽으로는 袷의 袂 및 四袂에 緣을 두르거나 裝飾을 하였고 中國에서 들여오는 貂皮로 만든 袷을 崇尚하였다. 제주도에서 生産되는 馬駒皮로 袷을 만들면 얼핏 보기에 貂皮 같은

15)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18, 道士, 卷19, 進士, 民長.

16)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p.148, 150, 153, 157.

17)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 東國文化社, 1961. p.189.

18) 徐有錕, 앞의 책, p.432.

데다 또 따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갓옷이나 이불 혹은 요를 만들었다.

北關에서는 무명이 없어 강아지 가죽 검은 것을 갈라 갓옷을 만들어 貴人들도 스스럼 없이 입었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이었으며, 羊皮는 貴한 녀슬아치들은 입지 않고 가난한 선비들이 무득이 추위를 막기 위하여 입었는데 만약 때가 닳을 경우는 돼지 발굽을 삶아 뜨거운 그 물로 씻으면 말끔히 지고 珊瑚를 다린 물로 씻으면 좀이 일지 않으며, 좋은 燒酒를 양털 위에다 뿜어 땀살가루로 닦아내면 털빛이 새것처럼 하얗게 된다고 하였다. 땀살 대신 즙살을 쓰기도 하였다.<sup>19)</sup>

國內에서 生産되는 호랑이, 표범, 여우, 오소리, 이리, 쥐, 수달, 영양, 可之, 물개, 너구리, 고양이, 승냥이, 곰, 노루 등의 皮가 中國의 어느 外夷地域에서 生産되는 것 보다 質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中國의 貂, 貉, 羔, 羊, 鼠와 倭의 水獺를 선호하는 傾向이 많았던 것 같았고, 國內에서 生産되는 毛皮는 모두 中國에 輸出하기 때문에 國內에서 生産되는 것이 오히려 本國에서 貴한 現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20)</sup>

徐有錡가 “여우는 우리나라 곳곳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硝鹼에 삶는 法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갓옷을 지어 입는 사람이 별로 없다.”<sup>21)</sup>고 한 것을 보면 毛皮의 가공 기술이 一般化되지 않아 갓옷이 一般人들에게 널리 着用되지 않았던 한 原因이었던 것 같다.

## 2. 갓옷의 刑制

古代 中國에서 着用되었던 갓옷은 그 길이가 衣와 가지런 하였으나 朝鮮時代의 갓옷은 그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고 갓옷의 形態는 대략 4種類로 區分되었다.<sup>22)</sup> 이를 보면,

1) 온 몸을 두루 둘러 감아 周衣와 같은形<sup>23)</sup>

2) 半臂, 方領에다 양쪽으로 옷깃을 해서 마주 내려와 길이가 겨우 배를 덮어 褙子와 같은形.<sup>24)</sup>

3) 길이가 복숭아 뼈나 정강이까지 인데 앞뒤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아(옆이 터져 있음) 冬衣(동옷)와 같은形<sup>25)</sup>

4) 저고리와 같은形<sup>26)</sup> 등이다.

갓옷을 着用할 때도 古代 中國이나 만주사람들은 반드시 털이 밖으로 나오게 입었는데 反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게 입었다.<sup>27)</sup> 그러나 近來까지 제주도 韓라산 사냥꾼들이 着用하였던 개가죽 두루마기는 털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庶民들이 着用하였던 갓옷에는 그러한 區分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갓옷이 언제부터 綃緞이나 紬絹을 걸감으로 하고, 毛皮를 안으로 받치기 始作하였는지는 確實하지 않다. 太宗 17年 明의 使臣 黃儼이 鵝靑綵段 胡衣를 내 놓으면서 貂皮로 안을 받쳐 달라고 하였고<sup>28)</sup>, 端宗 元年에 임금이 明의 使臣과 首陽大君에게 鵝靑段子 貂皮갓옷을 下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sup>29)</sup> 朝鮮朝 初期부터 이러한

1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卷22, 獸皮禽毛 辨證說, 明文堂, 1982. p. 654~656.

20) 李圭景, 앞의 책, p. 654~656.

21) 徐有錡, 앞의 책, p. 432.

22) 徐有錡, 앞의 책, p. 432. “古之裘製 長與衣齊 我東則 長短大小不一”

23) 周身環掩如今周衣(俗呼 두루마기)

24) 半臂方領 兩襟對下長僅護腹如今褙子

25) 長乃 𠂇脛而 前後不相連 屬如今俗所謂冬衣(동옷)

26) 有如金 裏衣(俗呼 저고리)

27) 李圭景, 앞의 책, 裘毛向外辨證說, p. 709~710.

28) 《太宗實錄》17年 7月 丙寅 “黃儼出鵝靑綵段胡衣曰請以貂皮爲裏”

29) 《端宗實錄》即位年 10月 癸巳, 戊甲

制度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두 깃이 나란히 내려온 形態의 袷옷은 銀 단추를 쓰거나 혹은 琥珀이나 密花 등의 단추를 使用하였다.<sup>30)</sup>

가. 男服에서의 袷옷

(1) 袷두루마기

《朝鮮王朝實錄》에서 임금의 下賜品이나 奢侈禁止 品目 中에서 言及된 毛裘, 裘衣, 皮裘 등은 使用된 毛皮의 種類에 따라 貂裘, 貂衣, 銀鼠裘, 土豹裘 등으로 記錄되었으며, 徐有錕은 이의 形制를 說明하면서 “은 몸을 두루 둘러감아 周衣(俗呼 두루마기)와 같은 形”이라고 하였고, 金東旭은 袷두루마기라고 하였다.<sup>31)</sup>

貂皮 袷옷이나 銀鼠皮 袷옷은 임금이나 東宮까지도 奢侈品으로 여겨 着用하지 않았으며<sup>32)</sup>, 貂皮 袷옷 한 벌을 만드는데 貂皮 60장 정도가 소요 되었으므로 점차적으로 저고리나 背心 등의 안에 毛皮를 받쳐 만든 袷저고리나 털배자 등이 많이 着用되어 졌다.

中宗 때에 咸鏡道 節度使 禹孟善이 “本道는 木錦이 없어서 모두 田麻를 직조해서 옷을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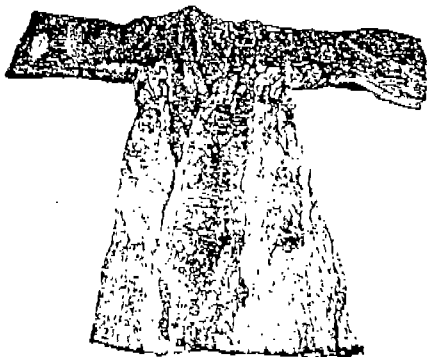


〈그림 6〉 개가족두루마기 着用圖(1920年代, 衣,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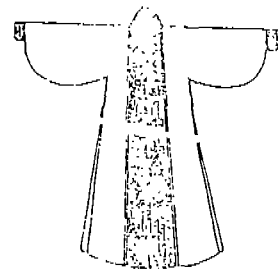
山麻를 거두어서 솜으로 하고 개가족으로 옷을 만든다”고 報告하고 있고<sup>33)</sup>, 明宗 때에는 六鎮에 防禦用 狗皮衣를 만들어 보냈다<sup>34)</sup>는 記錄이 있는데 咸鏡道에서는 이러한 가족두루마기가 朝鮮時代 末까지 있었고 제주도의 한라산 사냥꾼들이 입었던 개가족 두루마기는 현재 제주 민속박물관에 古實物이 남아 있다. 〈그림 5, 6〉

(2) 貂(鼠)皮 襖子

《集韻》에서 襖는 袍라고 하였으며, 《中華古今註》에서 襖子는 대개 袍에서 精해진 形象이라고 하였다. 〈그림 7〉



〈그림 5〉 개가족두루마기(1880年代, 제주民俗博物館 所藏)



〈그림 7〉 襖子(三才圖會 卷4, 衣服(3), p.1547)

30) 徐有錕, 앞의 책, p.432. 其兩襟對下者用銀紐或琥珀, 密花等紐

31) 金東旭, 앞의 책, p.406, 407

32) 《宣祖實錄》26年 11月, 《增補文獻備考》卷79, 禮考 26章 服 1, 衣服總論

33) 《中宗實錄》17年 1月 壬戌

34) 《明宗實錄》18年 8月 癸丑

徐有渠가 說明한 袷의 形制에서 “길이가 복숭아뼈나 정강이 까지이고 앞뒤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아 冬衣와 같은 袷”이라고 한 것은 成宗이 謝恩使 韓明晝에게 下賜한 灰色紬 鼠皮襖子 및 秦聞使 沈會에게 下賜한 草綠紬 貂皮襖子와<sup>35)</sup> 同一한 袷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灰色紬에는 鼠皮를 안에 받친 襖子, 草綠紬에는 貂皮를 안에 받친 襖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袷을 만드는데 걸감과 안에 받치는 毛皮의 색깔을 같게 하였던 것은 周代의 裘衣制度에서 楊衣를 裘의 색깔과 同一하게 하였던 것에서 연유된 것이라 추측된다.

### (3) 貂皮虛胸

貂皮虛胸은 임금이 中國 使臣과 謝恩使 및 秦聞使, 告訃使 一行에게 내린 下賜物目 중에 포함되어 있고<sup>36)</sup>, 世祖 6年 睿宗妃 집에 보낸 禮物中에 大紅段好袖小襖子一好袖卽鶴袖虛基胸 1벌이 포함되어 있는데 好袖小襖子를 다른 小襖子와는 달리 注를 달아 區分한 것은 形態의 차이가 있음을 說明한 것으로 好袖는 곧 鶴袖로서 胸이 虛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즉 가슴이 비었다는 것은 옷깃이 여미어지지 않은 對衿形의 옷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徐有渠가 說明한 袷의 形制中에서 半臂, 方領에 兩襟으로 그 길이가 겨우 배를 덮어 褙子와 같은 形이라고 한 袷은 털 褙子를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四禮便覽》에서 “褙子は 色이 있는 明紬와 絹을 使用하여 만들며 깃을 맞대고 옆을 터 놓으며 소매는 둥글게 하는데 빈 팔로 하거나 소매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sup>38)</sup>

이상과 같은 考察에서 貂皮虛胸은 貂皮로 만든 반소매의 褙子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고 朴聖實

이 虛胸을 後代의 털褙子와 有關한 것으로 推定한 것과 一致한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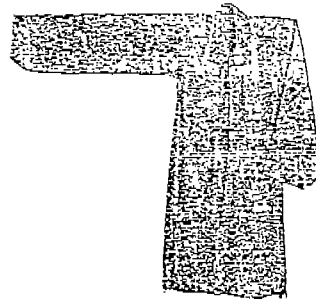
짐차 소매가 없는 褙子에다 毛皮로 안을 받친 털褙子가 男女 모두에게 着用되어 졌다.

### (4) 貂皮短襖子

端宗 即位年에 임금이 首陽大君에게 貂皮短襖子 한 벌을 下賜하였는데<sup>40)</sup> 朝鮮時代에는 저고리가 短襖子로 호칭되었음을 볼 때, 이 옷은 貂皮로 만든 袷저고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袷은 後代에 와서 襟을 紬로 하고 毛皮로 안을 받친 袷저고리로 變化되어 한 때 男女區別 없이 着用되었고, 特히 婦女子들이 愛用하였다.

### (5) 戰袍로 轉用한 袷

南 以興 將軍 遺品中 鹿皮 袷은 아래에 鹿皮 袴를 입고 그 위에 이 袷을 걸친 것으로 추측되며 이 袷의 制度로 보아 이 자체가 防衣로서의 甲衣이거나, 甲衣 밑에 입었던 下衣일 可能性도 있다. <그림 8>



<그림 8> 裘衣(鹿皮) (文化財大觀, p.41)

35) 《成宗實錄》5年 12月 庚子, 7年 8月 甲戌

36) 《世祖實錄》14年 7月 戊辰, 《睿宗實錄》元年 2月 戊子, 《成宗實錄》5年 8月 辛丑, 12月 庚子, 7年 8月 甲戌, 《燕山君日記》元年 1月 庚寅

37) 朴聖實, <朝鮮前期服飾研究>, 博士學位論文, 世宗大學校大學院, 1992, p.452.

38) 《四禮便覽》卷 1, 冠禮陳服

39) 朴聖實, 앞의 책, p.459

40) 《端宗實錄》端宗 即位年 10月 癸巳

## 나. 女服에서의 갓옷

### (1) 갓저고리

우리나라의 風俗에서 옛날부터 存在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나 衣服으로서 京師 兩班家에 流行하게 된 것은 成宗, 中宗代였다.<sup>41)</sup>

女服에서의 貂裘 또는 貂服은 저고리에 貂皮로 안을 받친 것으로 갓저고리라고 하였다.<sup>42)</sup> 이 갓저고리의 안을 받쳤던 毛皮는 貂鼠皮에 限하지 않고 羊이나 토끼 등의 여러 種類의 毛皮를 使用하였고 中部 以北의 추운 地方에서 더 널리 보급되었던 防寒服의 하나였다.<sup>43)</sup>

갓저고리는 저고리 위에 덧 입게 되어있는 관계로 확장, 품, 길이가 모두 넉넉하여 길이는 거의 臂部까지 내려왔고 확장은 손등을 덮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도련, 수구, 목둘레까지도 毛皮로 線을 들렀는데, 털에 때가 묻어 더러워지면 말린 찻쌀가구를 털위에 뿌려 손바닥으로 싹싹 비벼서 그 찻쌀가구에 때가 묻게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었다고 한다.

### (2) 褙子

婦女子가 겨울에 防寒用으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조끼 형태의 옷이다. 朝鮮時代 末期(1900年頃)까지는 男女 共用으로 着用하였으나 近來에는 女性의 專用物이 되었다.

《朱子語錄》胡德輝 雜誌에 이르기를, “褙子라는 것은 본래 婢妾의 服裝이다. 길을 다닐 적에 본부인(主母)의 등뒤에 따라다니므로 그래서 이름을 褙子라고 하였다. 그 뒤에 男女의 貴賤을 區分하는 옷이 되었다.”<sup>44)</sup> 대개 秦나라때 朝服에 褙子を 덮쳐 입었는데 《三才圖會》에서 이르기를, “秦二世

가 朝服위에 褙子を 덮쳐 입으라고 命令하였다고 하며 隋大業(A.D 601年~617年)間에 內官들이 많이 着用하였고 唐 高祖는 소매를 줄여서 반팔로 만들어 半臂라 하였는데 오늘날의 褙子라고 하였다.”<sup>45)</sup>

李晬光은 《芝峯類說》에서 이 半臂가 오늘날의 褙子라고 하였고<sup>46)</sup>, 宋文欽의 《閒靜堂集》에서도 “半臂는 지금의 掛子와 비슷하다. 掛子の 兩袷가 直垂한 것과는 다르다. 半臂의 짧은 것은 지금의 褙子다.”<sup>47)</sup>라고 하여 당시의 褙子の 形態를 說明하고 있다.

婦女들이 着用한 褙子는 소매와 襟, 고름이 없으며 깃의 좌·우 形態가 같아서 앞에서 맞닿는다. 겉은 비단으로 만들며 진동물레와 絞선, 도련에 水獺皮로 線을 두르고, 안에는 羊, 너구리, 토끼 등의 毛皮를 받쳤다. 防寒 뿐만 아니라 裝飾用으로도 使用되었다.<sup>48)</sup>

## V. 結 言

上古時代에는 우리 民族의 主活動 무대가 中國大陸의 東北地域을 포함한 滿洲一帶 및 韓半島의 북쪽 地域이었으므로 服飾도 寒帶性 服飾의 特徵을 나타내며 毛皮가 겨울용 防寒衣의 材料로서 使用되었다.

新羅의 三國統一後 國土가 韓半島로 축소되면서 점차 尙武精神의 쇠락과 함께 遊牧騎馬民族의 氣風은 약화되고 이와 더불어 防寒衣로서 갓옷의 역할도 감소되었고 毛皮의 主產地도 상실하여 韓國服飾에서 갓옷은 일부 계층이나 특수한 地方에

41) 《成宗實錄》3年 5月 乙巳, 6年 5月 庚申, 7月 辛酉, 甲子, 18年 6月 庚午, 《中宗實錄》2年 5月 丁丑, 9年 10月 庚戌, 13年 6月 乙亥

4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앞의 책, p.556

43) 柳喜卿, 앞의 책, p.349

44) 趙在三, 《松南雜識》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6, p.731.

45) 《三才圖會》卷4, 衣服下 4, 成文出版社, p.1546

46) 李晬光, 《芝峯類說》卷19, 服用部

47) 宋文欽, 《閒靜堂集》卷7, 雜著

4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編 下》, p.86



서만 계속 着用되어 왔던 것이다.

朝鮮時代의 服飾 가운데서 異彩를 띄는 袷옷制度는 成宗 및 中宗代에 와서 一般化하여 男服 뿐만 아니라 女服에도 이를 着用하게 되어 한 때 서울 兩班家에 盛行하여 이의 禁令을 내리기까지 하였고, 이 制度는 肅宗, 英祖代까지 내려왔으나 그以後 婦女子의 貂皮袷옷의 使用은 점차 줄어들었다.

朝鮮時代 袷옷의 材料로 使用되었던 毛皮는 貂皮, 鼠皮, 馬駒皮, 강아지가죽, 羊皮 등이 있었으며 貂皮는 사방 한자의 크기 밖에 되지않아 60여 마리의 皮를 모아야 겨우 袷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어 점차 袷저고리, 털襪子 등의 안을 받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朝鮮時代 袷옷의 形制는 長, 短, 大, 小로 古代中國의 裘처럼 그 길이가 衣와 가지런 한 것이 아니었다.

《朝鮮王朝實錄》에서 記錄되어진 貂裘, 毛裘, 貂服 등은 男服에서는 後代에 袷두루마기, 女服에서는 袷저고리 등으로 불리어 졌고, 貂皮襖子는 冬衣와 같은 形의 袷옷이었으며, 貂皮短襖子는 貂皮로 만든 男子用 袷저고리, 貂皮虛胸은 貂皮로 지은 반소매의 털襪子와 같은 것이었다.

袷옷의 袷을 高級匹緞으로 하고 毛皮로 안을 받친 形制로 된 것은 胡服系統의 樣式이 傳來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언제부터 韓國服飾에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朝鮮朝 初期에도 存在하였다. 또한 袷감과 안에 받치는 毛皮의 色이 서로 어울리게 하였던 것은 中國의 古代 以來로 내려온 毛皮服의 裝着慣習 影響으로 推定하였다. 朝鮮時代 服飾에서의 袷옷制度는 中期以後의 戰亂과 強力한 奢侈 禁止政策으로 점점 衰微를 감추고 袷저고리, 털襪子, 마고자, 개가죽 두루마기 등이 防寒用 衣服으로서 近來까지 傳하여졌다.

## 參考文獻

### 〈韓國書〉

-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太祖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太宗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世宗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端宗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世祖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睿宗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成宗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燕山君日記」,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中宗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明宗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_\_\_\_\_, 「宣祖實錄」,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 高大博物館, 「服飾類名品圖錄」, 1990.
-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文化史大系」1.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81.
- \_\_\_\_\_, 「韓國民俗大觀」1, 2.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 \_\_\_\_\_, 「韓國文化史大系」IV, 風俗史編,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1.
- 高福男,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서울: 集文堂, 1987
- \_\_\_\_\_, 「한국전통복식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86
- 古典刊行會, 「增補文獻備考」, 서울: 東國文化社, 1971.

- 고전연구실, 「高麗史」, 평양: 신서원, 1991.
  -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 金富弼, 「三國史記」, 서울: 朝鮮史學會本, 1940.
  - 金英淑, 「韓國服飾史辭典」, 서울: 民文庫, 1988
  - \_\_\_\_\_, 「韓國服飾史資料選集」, 上古·高麗編, 서울: 民族文化史, 1985.
  -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4, 壁畫」, 서울: 同和出版社, 1974
  -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 東國文化社, 1961.
  - 南廣祐, 「古語辭典」, 서울: 一潮閣, 1977.
  - 「老乞大·朴通事 諺解」,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 東北亞細亞研究會, 「比較韓國文化」, 서울: 三省出版社, 1981.
  - 「杜詩諺解」, 서울: 景仁文化史, 1975.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서울: 文化財管理局.
  - 민족문화추진회 편, 「고려사절보」, 1968.
  - \_\_\_\_\_, 「樂學軌範」, 서울: 新興인쇄주식회사, 1980.
  - 朴京子, 「韓國服飾論考」, 서울: 新丘文化社, 1983.
  - 徐克, 「宣和奉史 高麗圖經」,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 사회과학원고고학 연구소, 「고구려문화」,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徐有錕, 「林園經濟志(二)」, 서울: 保景文化社, 1983.
  - 石宙善, 「衣」, 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1985.
  - 신기철,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三省出版社.
  -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編 (I, II, III)」, 서울: 教文社, 1982.
  -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教文社, 1981.
  -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서울: 裕庚出版社, 1973.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 東國文化社, 1959.
  - 이상훈, 「조선옛말사전」, 서울: 乙酉文化社
  - 李晔光, 「芝峯類設」,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5.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自場堂, 1947.
  - 李漢, 「星胡僊設」, 서울: 景文社, 1981.
  - 李緯, 「四禮便覽」, 憲宗十年, 1844.
  - 李春植, 「中國古代史의 展開」, 서울: 藝文出版社, 1986.
  - 任明美, 「中國의 古代服飾研究(1)」, 서울: 耕春社, 1988.
  - 任榮子, 「韓國宗教服飾」,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 鄭良婉 譯注, 「閩閩叢書」, 서울: 寶晉齋, 1975.
  - 趙在三, 「松南雜識」,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6.
  - 朝鮮圖書株式會社 編, 「原本詩傳」
  - 崔淳雨, 「韓國美術全集 12, 繪畫」, 서울: 웅진出版社, 1992.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서울: 웅진出版社, 1992.
  - \_\_\_\_\_, 「經國大典 註釋編」, 서울: 天豐印刷株式會社, 1986.
  - \_\_\_\_\_, 「經國大典 翻譯編」, 서울: 天豐印刷株式會社, 1986.
  - 「訓蒙字會」, 서울: 大提閣, 1985.
- “
- 〈韓國論文〉
- 金明淑, 「先史時代뻬바늘」, 1990.
  - 金文淑, “우리나라 毛皮衣類産業에 관한 研究”, 성신女大生活文化研究所, 1977.
  - 박경자·조선희, “東北아시아 유의 起源과 그 交流에 관한 研究”, 服飾17, 1991.
  - 朴聖實, “누비小考”, 服飾14, 1990.

- ———, “朝鮮前期出土服飾研究”, 박사학위논문, 世宗大學校大學院, 1991.
- 孫敬子, “韓國蒙古服飾의 相關性 研究(Ⅱ)”, 服飾16, 1991.
- 李東馥, “遼末女眞社會의 構成” 清州大 論文集, 1984.
- 李蘭姬, “衣服의 起源에 대한 研究”, 服飾6, 1982.
- 이해영, 김문자, “우리나라 袍의 類型 및 源流에 관한 研究”, 服飾15, 1990.
- 柳憲卿, “男子袍屬考”, 錦浪文化論叢.
- ———, “先史時代 있었을 우리 民族服飾을 생각하며”, 服飾5, 1981.
- 任明美, “襟子考”, 家庭學會誌, 16卷2, 1978.
- 任榮子, “孔子의 衣·食·住에 대한 考察”, 世宗大論文集 9輯, 1982.
- ———, “飛天服飾에 관한 考察”, 中國研究 第10輯, 1991.

#### 〈中國書〉

- 「三國志」,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後漢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北史」,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金敏勳, 「渤海國志長編」, 法仁文化社.
- 王沂, 「三才圖會」, 台北: 成文出版社, 1970.
- 李匡義, 「中華古今注」, 台北: 黎明文化事業公社, 1966.

## ABSTRACT

A study of ku

—based on Chosun dynasty—

the origin of ku and changes of styles from ancient times to recent times. It will contribut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change of clothing materials.

For this study historical comparative method were utilized using documentary records and relic of ku.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ur clothes were the first clothes that human beings put on in order to protect human body against the cold. Ku was widely worn by many people in Asia dynasty.

Ku was an out fit for protection against the cold and it was made of animal fur.

2. In ancient times, the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and Manchus were the mainfield of action of Korean people. At this time, Koreans preferred the ho-bok that the nomadic tribe used put on. But the territory of unified Silla was limited to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and it be supposed that ku was preferred only in a certain local community and social class.

In Chosun dynasty, ku was also adopted as garment for protection against cold.

During Sung-Zong and Chung-Zong era it was so popularized that both men and women in noble class preferred it. But in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government warned the nation against extravagance in living, ku losts its popularity and it was modified into another garments such as gotzugori, baeza and magoz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